

## Zhou 선교사를 만나고...

질은 인연이다!!!!

Zhou 선교사는 지난 2007 년 천안문 시위 때문에 난민이 되어 홀로 미국에 왔다.

그 이후 우연한 기회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말도 알아 듣지 못하는 우리 교회로 출석하기 시작했고, 종이 한장으로 번역된 설교를 듣고 복음을 이해했으며,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신학교를 마쳤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뉴욕 Flushing 에 파송하여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고 있는 중국인 선교사이다. 약 16 년간 고향의 땅을 밟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던 그가 이제는 조국의 복음화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묵묵히 그 길을 걷고 있다.

지난 16 년간 우리 교회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그를 지원해왔다. 그 도움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라도 더 풍성한 위로를 전하고 싶어 이렇게 방문하곤한다. 차로 다섯시간 거리이다.

평소와 달리 최근 그가 외롭고 힘든 마음을 전해왔다.

지난 16 년간 보내주신 후원과 사랑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자기는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질기게 주의 일을 붙들고 서 있는 그의 모습에 하나님의 인내를 느낀다. 그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의 충성스러움에 늘 감사하고 있다.

언젠가 자신이 주의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시라큐스 한인교회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주님이 주신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말을 들었던 많은 교인들의 마음을 울컥하게 한 적이 있다. 화려한 뉴욕 시티의 삶 안에서 가진 것 없어도 당당한 그의 모습에 우리는 때때로 숙연함을 느낀다. 팬데믹 기간동안에는 때때로 끼니를 거르면서 공원을 걸으며 기도하는 그 말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꼈던 적도 있다.

또 이렇게 만나니 반가웠다.

더 감사한 것은 이제 교회 개척의 빛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 New York Christian Church 외부 입구 >

비록 아직은 그가 원했던 교회의 이름 (중국인 사랑의 교회)은 아니지만, 함께 하는 중국 분들과 같이 교회를 개척하여 시작하고 있다 (New York Christian Church). 벌써 교인이 약 30-40 명이다. 70 명넘게 온라인으로 복음을 나누고 있다고 한다. 조만간에 순전한 복음을 가르치는 건강한 교회가 플러싱에 설 것이다!!!



< New York Christian Church 내부 입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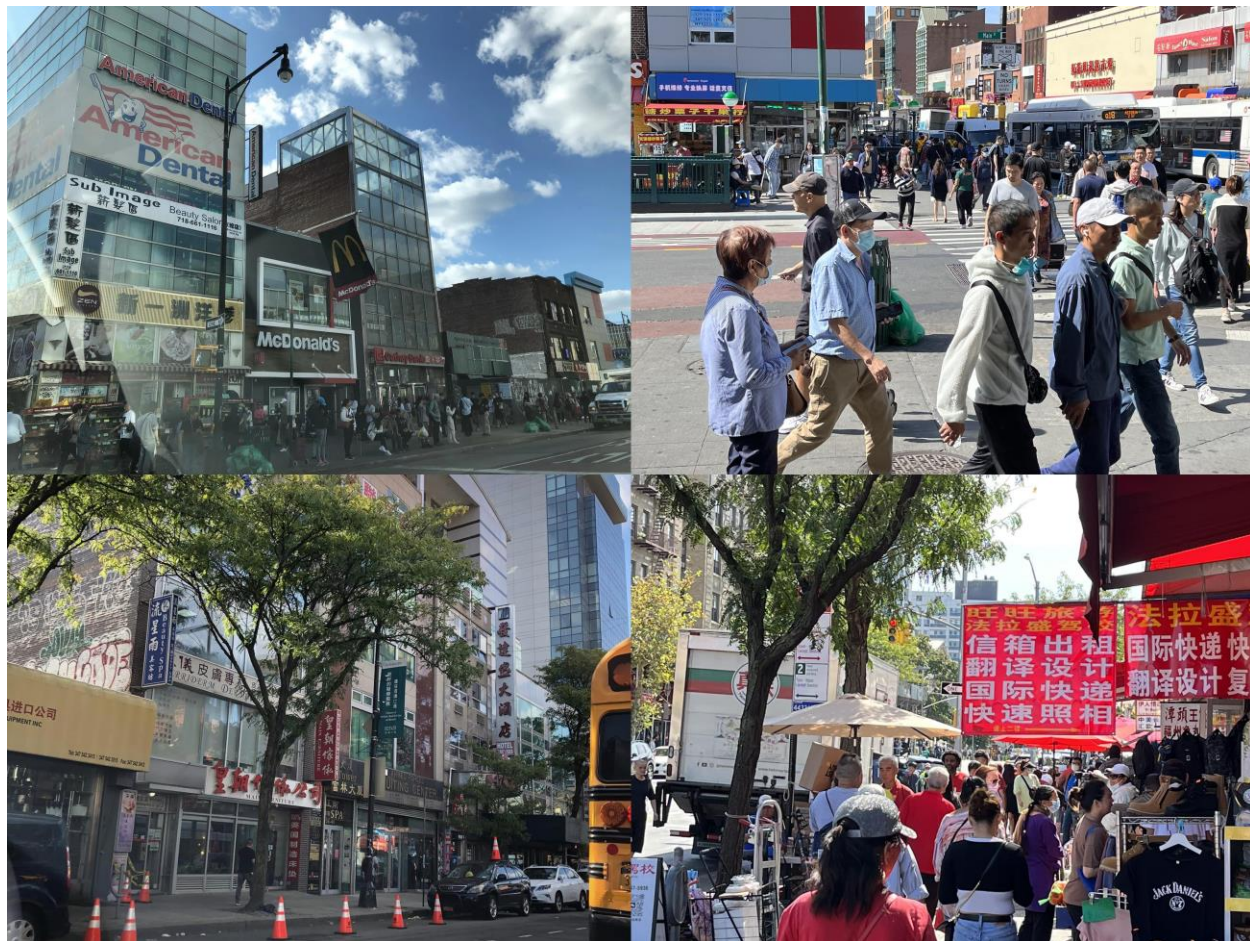
예전에 Zhou 선교사가 직접 세례를 베풀었던 형제들이 그를 돕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좋은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의 꿈을 듣게 되었다. 자기 민족만이 아니라 뉴욕 시티에 있는 다른 민족을 향한 비전도 들을 수 있었다. 우리 모두는 그 비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기를 바라며 기도할 것이다.



< New York Christian Church 섬기는 분들과 함께 >

교회가 위치한 그곳은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Flushing 의 Main Street 이다. 사방에 중국인 상점이 있고,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 Flushing 의 Main Street >

하나님의 계획이 서고 주의 백성들의 수고가 쌓여가고 있다. 언젠가 중국인 사랑의 교회가 그 곳에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끝까지 돕고 함께 움직여 갈 것이다. 한인 교회가 중국인 교회를 뉴욕시티에 세우는데 공헌했다는 좋은 소문을 듣고 싶어진다.

묵묵히 이 일을 따라주는 우리 교인들이 항상 감사하고 감사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